

국내 유선통신 장비업체의 중국진출 현황 및 동인

김 주 성

한국전자통신연구원 u-IT전략연구팀 책임연구원(juskim@etri.re.kr)

The Present State and the Driving Factors of the Investment in China by Korean Wireline Equipments Manufactures

Juseong Kim

요 약

최근 들어 저임금 및 거대시장 확보 차원에서 국내 유선통신 장비업체의 중국진출이 눈에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업체의 중국진출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먼저 국내 유선통신 장비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장비업체의 중국시장 진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대중국 진출을 유발하는 동인과 국내 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서론

중국의 통신장비 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면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Gartner에 따르면, 이동통신 인프라를 포함한 중국 통신장비시장의 규모는 2004년의 298억불에서 2008년에는 450억불까지 증가하여, 연간 10.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통신장비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국내 통신장비업체의 중국진출 또한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통신장비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수출을 통한 진출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직접투자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유선통신 장비업체의 중국 진출 동인 및 영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II. 국내 유선통신 장비산업 현황 분석

수급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국내 유선통신 장비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와 전망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국내 장비 내수시장은 차세대 통신망 투자에 힘입어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 오랜 기간 국내 신규 투자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국내의 업체들 간 출혈경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었다. 최근 VoIP, BcN 등의 신규 통신망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2004년 말 이후 내수 시장의 회복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부가가치가 높은 주요 장비의 경우 외산 의존도가 높아 신규 시장에서의 국내장비업체의 어려움이 우려된다. 초고속 인터넷 초기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인프라에서의 외산 장비의 영향력과 인지도가 높아 신규 인프라 시장에서 주도권을 넘겨줄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 없이는 지속적인 개발역력이 부족하여 이러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셋째, 국내 장비업체의 생산은 침체되었으나 내수시장의 회복과 더불어, 불황 돌파를 위한 해외 진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완만한 상승국면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전송장비의 자국장비화 및 국내 장비업체의 해외진